이스라엘 "가자 끝내버리겠다"

"두 달 내 가자지구 75% 점령 주민 200만명 몰아내기 목표" 하마스 완전해체 침공 공식화 26일 미국 구호프로그램 차질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 북부 자발리아에서 연기가 솟은 모습.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두 달 내로 가자지구의 75%를 점령하고 현지 팔레스타인 주민 200만명을 남은 좁은 지역에 몰아넣는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억류된 인질을 데려오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계획을 25일(현지시간)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3월 임시 휴전이 끝난 이후 다시 공세로 돌아서 현재 가자지구의 약 40%를 장악한 상태며, 지난주에는 가자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대대적인 지상 공세를 취하는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돌입했다.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은 가자 주민은 남쪽의 마사위, 중부의 난민캠프, 북부의 가자시티 등 3개 지역으로 강제 이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지역은 가자 전체 영토의 4분의 1 면적에 해당한다.

이스라엘군은 아울러 이르면 26일부터 가자에 구호품을 배포하기 위한 미국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에 따르면, 구호품 보급 기지가 가자 남부에 3곳, 중부에 1곳에 건설됐으며, 수백명의 미국 계약업자들을 구호품 배포를 담당할 예정이다.

새 보급 계획에 따라 팔레스타인 가족의 대표들은 5일에 한 번씩 기지를 찾아 보급품을 수령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가 구호물자를 탈취하거나 빼돌려 민간인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일을 막겠다면서 새로운 구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 가자에서 활동하던 유엔과 국제구호단체들은 동참을 거부했다. 가자 전역에서 수백개의 보급소를 운영한 바 있는 유엔 등은 주민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위험한 전쟁 지역을 통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원조 통제권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구호 시스템의 정착을 현장에서 지휘할 예정이던 제이크 우드 가자인도주의재단'(GHF) 이사장도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할 수 없다며 이날 돌연 사임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반발 속에서도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후통첩성 공격을 통해 하마스 지도부가 가자를 떠나게 하겠다는 방침이며 본격적인 침공 작전을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새로운 공세에는 가자, 점령뿐만 아니라 영토 유지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향후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에서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면 하마스가 사용하던 모든 기반 시설을 파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상당한 지역이 초토화된 가자는 더욱 황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하마스가 가자 땅 아래에 파놓은 수백㎞의 터널 중 25%를 이미 파괴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가자 점령을 위한 대규모 지상 침공이 연기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현지 예루살렘포스트는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가자 군사작전과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스라엘에 본격적인 침공 작전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안한 인질 10명 석방, 60일간 휴전 등을 논의해왔지만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태다. /연합뉴스

"가자 전쟁을 끝내라"

유럽·아랍권 등 동맹국들도 이스라엘 압박

유럽과 아랍권 20여개 국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 가자전쟁 종식을 위해 이스라엘을 동반 압박하고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구호품 반입 봉쇄로 가자지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기드온의 전차' 작전마저 개시하자 이스라엘의 오랜 동맹들마저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가자전쟁 중단을 위해 마련된 '마드리드 그룹' 장관급 회담에는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는 물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함께 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해온 '맹방'인 독일도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스페인과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에 이어 브라질 등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장관은 국제사회가 가자전쟁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두국가 해법'을 영원히 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 제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개인에 대한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자지구에서는 식량과 물, 연료, 의약품이 부족해지고 기근에 대한 공포도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EU·이스라엘 협정을 27개 회원국 중 다수의 지지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으로 EU가 이스라엘 전체 교역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협정이 무효가 된다면 이스라엘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 장관은 다음 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바르센 아가베키안 샤힌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 접근성을 높이고 이스라엘에 인도주의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 초안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국가 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연합뉴스

트럼프 "푸틴, 우크라 전체 원하는 듯…미쳤다"

종전협상 공전 속 러 비판…"젤렌스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완전히 미쳐버렸다"(absolutely CRAZY)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은 물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자신이 추진해온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항상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에게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나는 군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간인 살상 문제를 지적한 뒤 "우크라이나의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이 이유도 뭣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항상 그(푸틴)가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옳았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면서 "만약 그가 그렇다면(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면) 러시아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멈추는 것이 좋다"고 적었다.

그는 "이것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전쟁"이라며 "이것은 젤렌스키, 푸틴, 바이든(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전쟁이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심각한 무능과 증오를 통해 시작된 크고 추악한 전화(戰火)를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을 쓰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답했다.

그러나 1월 백악관 복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금융제재 등의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고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대러 제재 강화에 나설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파키스탄·인도 '물난리'

강풍·폭우에 건물 붕괴…최소 20명 사망·150명 부상 항공기 착륙하다 난기류 만나 회항…인도 뉴델리 침수

지난해 침수된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거리.

파키스탄 전역을 덮친 강풍과 폭우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여객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6일(현지시간) 인도 뉴스채널 인디아TV와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재난관리청(NDMA)은 최근 강한 돌풍과 폭우로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20명이 숨지고 150명 넘게 다쳤다고 전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지난 24일 동부 펀자브주를 비롯해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와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지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펀자브주에서만 라왈핀디, 제헬룸, 셰이크우푸라 등지에서 모두 12명이 숨졌다고 EFE 통신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지붕이나 벽에 깔려 숨지거나 벼락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카라치에서 동부 펀자브주 라호르로 향하던 민간 항공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회항했다.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 케랄라주에서 올해 몬순 우기가 평년보다 8일 빠르게 시작됐다. 이는 최근 16년 사이에 가장 이른 몬순이라고 EFE 통신은 전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중 한 곳이다. 매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남아시아를 강타하는 몬순 우기의 영향을 받는다. 몬순 기간은 해마다 달라진다.

파키스탄에서는 2022년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로 1700명 넘게 숨졌고, 집계된 경제적 손실도 300억 달러(약 41조 400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